

2001. 1. 13
한국여성기금소속 11호

소액이지만 다수의 지속적인 기부로...

박영숙 본회집행위원장

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.

건전한 민주사회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가운영의 파트너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과 제도와 관행을 창출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.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재단의 자산규모와 누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.

기본 자산인 미국의 310조 4000억원과 영국의 40조원 중 75%이상의 기부금은 그 나라 국민의 75%이상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. 소액이지만 다수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나누어주는 기부문화의 산물이다. 기부 방법은 '봉급의 1%주기'이다. 약속한 봉급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자동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다.

미국의 남가주대학교의 사회사업대학의 마리린 풀린학장은 자기대학의 교직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하기위해 돈은 자기가 낼터이니 이름만 빌리라고 까지 하면서 권장한다고 한다. 이만큼 이 운동의 확장에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.

최근 영국에서는 돈, 시간, 그리고 노력봉사를 더 내놓게하는 <더주는 시대> 만들기를 선포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시간으로는 1주일에 다섯시간, 기부금은 연수입 5%를 내는 <5주기 운동>을 전개하는 등의 기부문화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.

한국여성기금은 지난해에 시작한 <봉급의 0.1%기부운동>을 21세기의 첫해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 100만원 봉급에서 1000원을 내는 것이다. 기부하는 방법은 누구나가 거래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079-01-0405-971에 자동이체 하도록 단 한번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. 그 기부금은 영구적인 기금으로 존치되면서 평등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게 된다.

나의 작은 나눔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의 수고가 문제되는가.